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포천에서 성료

대상 부천시 극단 열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상 수상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와 포천시 공동주최한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도내 2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 대상은 부천시 극단 열무에게 돌아갔다. 극단 열무(대표 최정필)는 정세혁 작 '보고 싶습니다' 작품을 열연했다.

이번 대회 심사는 방태수 연출가와 윤우영 대진대학교 교수, 조현건 배우, 최정환 연출가, 박종선 극단 팩트 대표 등이 맡았다.

시상은 대상 1팀에 경기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금상 1팀에 경기도지사상과 상금 150만원, 은상 2팀에 경기도예총회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또 동상 3개팀에 경기도 연극협회장상과 상금 각 70만원과 장려상 3개팀에 포천시장상과 상금 각 40만원, 장려상 3개팀에 포천시회의회장과 상금 각 40만원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를 유치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상식에서 "포천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포천시는 포천시극단을 창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이번대회 시상결과다.

■단체상▷대상 경기도지사상 ▶부천시 극단 열무 '보고 싶습니다' ▷금상 경기도의회회장상 ▶광주시 극단 밀목 '포랑' ▷은상 경기도예총 회장상 ▶의정부시 회룡극회 '행복한 선인장' ▶안성시 극단 서라벌 '아버지' ▷동상 한국연

극협회경기도지회장상 ▶성남시 극단 프르메 '꽃머노리' ▶안산시 극단 풀빛 '엘리베이터 엑시던트' ▶포천시 극단 마흔 '강도의 꿈' ▷장려상 포천시장상 ▶고양시 극단 행주치마 '마흔 즈음' ▶군포시 극단 수리산 '달빛속으로' ▶수원시 극단 연극동호회 '작가를 찾는 8인의 등장인물' ▷장려상 포천시회의회장상 ▶양평시 극단 풀 '스캇 여자 그리고 여자' ▶광명시 극단 해오름 '더 텐티스트' ▶안양시 극단 소리 '투신' ■개인상▷회복상 경기도예총회장상▶광명시 극단 해오름 양승환▷연출상 경기도예총 회장상▶의정부시 회룡극회 이선희▷미술상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상▶광주시 극단 밀목 이혜인▷고양시 극단 행주치마 이원경▶안성시 극단 서라벌 문승룡▶안산시 극단 풀빛 이혜선 ▷우수연기상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상▶부천시 극단 열무 윤우경▶남양주시 극단 천마산 장은아▶성남시 극단 프르메 김재수▶의정부시 회룡극회 조명자▶용인시 극단 꿈을 지키는 바보들 강효석▶수원시 극단 연극동호회 허혁▶구리시 극단 어울림 김진선▶시흥시 극단 시흥 이예나▶양평시 극단 풀 하명주▶광명시 극단 해오름 박경찬

김영복 기자 best114@hiteil.net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27

서예가 '한영수'



▲ 서예가 한영수

예를 보급하라는 뜻의 서예가 한영수의 호이다.

梅泉 '매화 나무 매' 자에 '샘 천' 자. 매화나무 숲에 청천수가 흘러 가 물을 적시듯 목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서

"붓글씨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한영수 작가.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퇴근하며 하루도 빠놓지 않고 붓을 든다. 이런 노력들은 절로 빛을 발하기 마련. 지금까지 소흘음 원일 아파트 현관, 양주시 오산이리 도로 이정표, 서천군 김녕 김씨 묘지 상징탑 등 휘호를 부탁 받아 기증한 사례도 많다.

마지막으로 포천반월아트홀 개관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포천의 서예 발전을 위해서 서예연구관을 건립하겠다는 한영수 작가

“禮가 배어있는 글씨가 진정 아름다워”

평생교육 서예교실 운영등 대중화에 앞장

붓글씨 쓰기 위해서는 사심 먼저 버려야

“예전부터 서예는 선비층이 즐기는 딱딱한 학문이라는 인식이 많아 대중화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한영수 작가는 이를 위해 교직에서 학생들의 서예 동아리를 지도하며 가훈 써주기 봉사활동, 평생교육 서예교실 운영, 경기도교사서예연수원 서예 강사 등으로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예는 정신과 육체가 하나되어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해주는 이상적인 예술이지만 순수한 열정이 없으면 3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특히 준비과정의 복잡하고 서법이름 등 이론적인 뒷받침을 탄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하기 쉽다.

한영수 작가는 “서예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굉장히 어려운 예술”이라며 우선은 사심과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글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뜻의 書如其人(서여기인)이란 말이 있다. 작가의 인품이 그대로 글로 표출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글씨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글씨체가 아무리 미려해도 작가의 인품과 생이 울바르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깨지게 마련이죠.”

한영수 작가 스스로도 현암 정성욱 선생으로부터 사사 받은 순간부터 현재까지 “서예의 기본은 禮”라는 신념으로 마음을 바르게 갖기 위해 노력해왔고 평생교육 회원들과 제자들에게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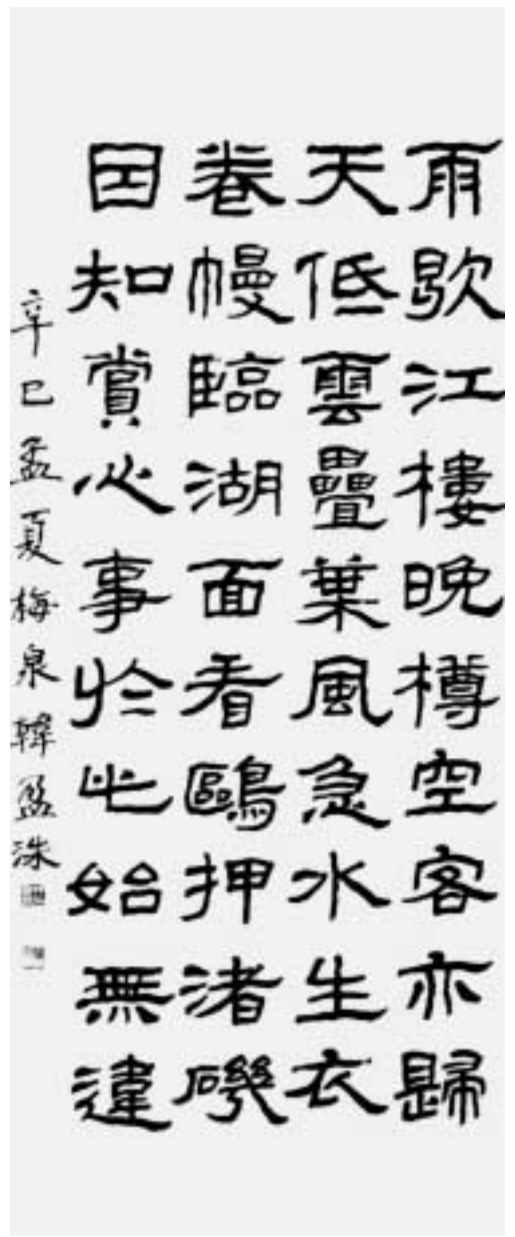
먹을 갈며 잡념을 없애고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구상한 뒤 일괄취지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수량이 된다. 여기에 옛 선현들의 정신이 담긴 교정을 많이 읽으면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오직 글씨를 잘 쓰겠다는 일념보다는 옛 선현의 정신을 음유하면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일환으로 서예를 대한다면 절로 향기로운 묵향이 배어 나온다”고 한영수 작가는 말했다.

‘서예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한영수 작가는 “지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자살율이 급증하는 등 정신적 방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점차 물질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곧 다시 전통문화를 찾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 꿈이 꼭 나라를 띄워 기원해본다. 문이려는 인식이 많아 대중화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문언 기자 soma7000@naver.com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6)

장미꽃 향기 같은 예술무대였다.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전문위원

많은 포천반월아트홀 흥운기 소장님을 비롯한 공연기획팀과 무대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잡자는 고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비상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힘있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를 관람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포천신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움을 느끼고 훈훈한 인심과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간다는 광주시, 구리시, 안산시 등 23개 시,군 동료 연극인들의 건승을 빈다.

치 끈임 없이 이어온 도도한 한 내의 불꽃기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문화예술에서도 우리의 것이 경기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좋은 본보기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여 우리만의 것이 한국의 자랑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 단위의 행사를 위해서 2년을 준비했다면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예술가의 탄생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가능성의 축제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고장에서도 수준 높고 독창적인 예술무대가 꽃향기같이 가득 차서 깨끗한 자연과, 깊이 있는 문화와, 인정이 넘치는 삶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

로 거듭나서 타 시, 군의 예술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내 고향을 만드는 것이 토박이 연극인의 애정 어린 바람이다.

또한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흥성훈 의장님, 이강림, 김영오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현실 예술가로 정치에 입문한 이철우 국회의원님, 이웃 남양주에서 축하해주러 달려온 박기춘 국회의원님, 불철주야 우리 것을 찾고 계시는 이만구 문화위원장, 경기도 예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각 시군 참가자 그리고 불신앙편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행사기간 동안에 준비와 진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포천시청 이정열 부시장님, 문화관광과 채희군 과장님, 행사 전담팀장이며 가장 고생이 많은 신 이해정 계장님, 이광호 님에게 어려운 직무에도 각별한 협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포천의 공연장 운영의 인식을 심어주고 상냥한 협조를 아끼지

아늑한 실내와 정성이 담긴 음식을 제공하는 남원골 추어탕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188-15 문의 · 예약 : 031)535-5234 대표 박영주,양수남

남원골 추어탕, 삼밥, 청국장



- 메뉴 :
- 추어탕 : ₩6,000
- 삼밥 · 청국장 : ₩6,000
- 등추어탕 : ₩7,000
- 청국장 : ₩4,000
- 추어매운탕 : ₩25,000

